



기독일보



2024년 5월 8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8호

“국회의원 당선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길”

인천광역시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 열려

인천광역시기독교조찬기도회(대표회장 이건영 목사)가 지난 7일 오전 인천 허버파크호텔에서 제42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를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로 드렸다. 이날 기도회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선 황규호 목사(공동회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부른 후 김중훈 장로(인천광역시 총연합회장로 총회장)가 대표기도를, 장은화 장로(인천광역시 어미니기도회 회장)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이건영 목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잠언 16: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에게서도 내가 당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선시켜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선 이

후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금보다도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순에서 정일량 목사(인기총 상임회장)가 ‘자유민주주의 대한 민족으로 번영과 안보와 출산강국이 되게 하소서, 김진욱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제22대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고 생명존중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소서, 신용대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인천시의 모든 악법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이슬람사원의 건축도 막아 주소서, 신윤진 목사(인기총 공동회장)가 ‘인천시민에게 행복과 가정보호 및 거룩한 도시로 복음화 시켜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이어 임형재 목사(인기총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이어진 2부 축하 순서에선 하귀호 목사(직전회장)의 사회로 김길수 목사(상임부회장)가 당선자 소개를 했다. 이어 축하패



“하나님 뜻을 따라” 제42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초청 감사예배 및 축하회’로 드려졌다. 참석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증정을 했으며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또 이종복 목사(여연기념관대표), 정연수 목사(전 중부연회 감독)가 격려사

를 전했다.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교홍 시장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답사를 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까지 오게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총선을 통해 권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권력에 대한 겸

손은 자기의 내공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믿음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믿음이 큰 지도자일수록 큰 정치를 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천에 있는 인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교홍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었지만 한 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을 하면 민심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은 정치로 인천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행사는 이어 전명구 목사(공동회장)의 당선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 임재성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김덕구 장로(본회 위원)의 조찬감사 및 마침기도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순교자의소리, ‘조선어 성경 최초 번역’ 존 로스 선교사 책 출간

7일 최성일 교수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출간 기념 기자회견

한국 순교자의소리(한국VOM, CEO 에릭 폴리, 대표 현숙 폴리)는 7일 서울 정릉 사무실에서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가 저술한 책 ‘최초의 한국어 성서와 한국 개신교의 기원’ 출간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책은 한국VOM이 구한말부터 조선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한 스코틀랜드연합장로교회 소속 존 로스의 선교 역사를 연구한 최 교수의 박사학위 영어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해 출간한 것이다.

한국VOM에 따르면, 존 로스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인의 뿌리가 될 수 있다. CEO 에릭 폴리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장하려면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 개신교의 기원은 두 그룹으로 분류된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등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에서 출발한 기독교다. 이들이 당시 조선 사람들을 전도 방법이 병원, 학교 등 문화나 생활 방식의 유행을 제공하면서 기독교의 매력을 호소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전하

는 것”이라며 “조선 사람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나 학교, 또는 이들의 사택을 방문하면서 기독교에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룹은 앞선 서양 선교사들보다 먼저 온 스코틀랜드 출신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전파 방법이다. 이들은 병원이나 학교 등을 세우는 것보다, 성경 번역본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도했다”며 “이 성경 번역을 했던 조선인들은 처음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다. 그는 “번역된 성경 1만 5천 권이 아펜젤러 등 앞서 소개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보다 이미 조선 땅에 배포된 상태였다”며 “그의 선교 방법론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먼저 파견되기보다, 성경을 먼저 그 선교지에 배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조선에 선교한 두 부류의 선교사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

하고 이해했다. 존 로스가 성경오만만 전도하는 선교 전략은 1930년대까지 효과적으로 이뤄졌고, 오늘날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1989년부터 남한 기독교는 매년 교세 감소세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세는 이전 대비 전체 교회의 30%가 사라졌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일각에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기독교를 선호하는 정치가를 선출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전략이 있다. 존 로스에서 시작된 선교 방법론”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아펜젤러 등 서양 선교사들이 병원, 학교 등 생활의 유행을 제공하면서 전파하는 기독교 방식과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방식”이라며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으로 인해 북한 지하교회와 성장했다. 이 방법론은 북한 지하교회의 태동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남한과 북한 교회의 성장세를 비교하면, 강한 정치적 박해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교회의 성장세가 남한보다 앞서고 있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러한 북한 교회의 강력한 성장세를 견인한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은 교회가 존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존 로스의 선교 방법론을 광범한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존 로스 선교사 전문가인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에게 그가 저술한 존 로스 관련 논문의 출간을 제안했고, 그의 승낙에 따라 순교자의 소리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했다.

에릭 폴리 목사는 “이는 존 로스 선교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는 최고의 책”이라며 “이 책을 한국 기독교의 전통인 ‘성경 사랑’을 회복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킬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 최성일 한신대 명예교수는 “존 로스가 조선인을 만난 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제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으로 유학할 당시 지도 교수는 내게 존 로스가 한국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며 박사학위 논문 저술을 제안했다”며 “안수받은 선교사로서 중국 만

주에 파견됐던 존 로스가 어떻게 조선 선교를 결심했을까. 그는 조선인 몇 명을 고용해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돌입했고, 1882년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1887년 신약성경 완역을 완수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최 교수는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시작했다고 주로 저술포되지만, 실질적인 시작은 존 로스 선교사에게서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3000년 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한국 교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번역은 화심의 역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이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받아들여 삶이 바뀌는 역사가 두 번째 사건이라면, 성서는 선교의 도구가 아니라 본질”이라며 “말씀이 없다면 선교가 이뤄질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말씀이 번역되고 선포돼야 선교가 완수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존 로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열정밖에 없었다. 그는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사인을 통해 조선에 전파했고, 결국 한국기독교가 발전된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교회의 쇠퇴는 1980년대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외적인 부분에 집중된 탓이라고 본다”고 했다.

최 교수는 “1882년 존 로스가 누가복



(왼쪽부터) 현숙 폴리 대표, 최성일 교수, 에릭 폴리 CEO ©노형구 기자

음을 번역할 당시엔 구전 문화로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거리가 없던 시절에 성경을 암송하는데 탁월했다. 그러나 지금은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위와야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했다.

그는 “당시 상인 김철승이 만주에서 한약 장사를 마치고 존 로스의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 채용됐고 이 작업 과정에서 누가복음 세용 모두를 외워버렸다. 그리고 그는 암묵간 근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 1년 반 동안 가정 75곳에 누가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줬다”며 “존 로스의 성경 번역본은 한국 새문안교회 창립에 영향을 줬다. 이처럼 존 로스는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잡은 인물”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일각에서 알려진 존 로스 일화에 관해 오해가 있다며 “존 로스가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고, 다만 자금 조달 등 출판 책임 역할을 했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8·9호선 석촌역 10초

석촌호수 · 한강을 품은 최고의 입지!

리버레이크 송파

RIVER LAKE SONGPA

계약금 4천만원대!

분양가 5억만원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시공예정사 대우건설

석촌역10초역세권 · 35층 한강조망권 · 잠실중심생활권

중도금 무이자 · 송파 랜드마크 · 청약통장 무 · 35층 상향확정

상담문의 02) 588-1800

※ 조합원 자격기준 ■ 서울 · 경기 · 인천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1세대 소유자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세대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 날로 한다. ※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 주택의 규모는 조합의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따라 평형별로 확정한다. ■ 조합에 제출한 가입신청서에 신청한 평형 또는 납부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조합원의 동 · 호수 결정은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조합원 모집 차수 또는 동 · 호수에 따른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에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양가격(조합원 부담금) 상정의 방법으로 따라 인 · 허가 진행과정에서 관련법규와 허가신청의 조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부분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가입한 조합원의 동 · 층 · 호수 · 향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배정되는 세대배치 업무일체의 권한을 업무대행사에 위임한다. ※ 상기 조건에는 각종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등)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부담금은 추후 관련 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